# 산새반 유아들의 관계적 공격전략 분석*

Relational Aggression Strategies of Young Children in 'Sansae Class'*

정은정(Eun Jeong Jung)[1)]
이희영(Hee Yeong Lee)[2)]
이경화(Kyeong Hwa Lee)[3)]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terpret relational aggression strategies in 4 year old young children's interactions in 'Sansae class' in terms of two-fold dimensions of proactivity and reactivity. Following an ethnographical approach, participative observation on young children an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teacher were employed, over the course of 30 sessions of 3 hours dur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proactive relational aggression was more frequently observed in girls, and their major strategies employed against someone they disliked were ignoring them, distorting play-rules, and so on. Major strategies of reactive relational aggression in girls were largely manipulative in nature, for example, 'threatening their friend' and 'withdrawal of friendship'.

**Key Words** : 주도적-관계적 공격성(proactive-relational aggression), 반응적-관계적 공격성(reactive-relational aggression), 유아(young children).

## I. 서 론

가족 구조가 다양화되고 자녀에 대한 가정의 교육적 역할 및 기능이 점차 약화되면서, 생의 이른 시기부터 형식적인 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가 많아지고 있다. 성인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가정에서의 일방향적 관계에 익숙한 유아들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과 같은 기관에서 또래를

* 이 논문은 부경대학교대학원 2010년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1) 응봉초등학교 방과후보육교사
2) 부경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3) 부경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Kyeong Hwa Lee,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Daeyon 3-Dong, Nam-Gu, Busan 608-737, Korea
E-mail : khlee@pknu.ac.kr

만나게 되면서 가정에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수평적인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원만한 또래관계는 사회화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것으로(정옥분, 2004), 유아는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자아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점차 타인을 존중하는 것을 배우고 또래로부터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으며 성공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기술이나 규범을 배울 수 있다(Hartup, French, Laursen, Jonster, & Ogawa, 1993; Parker & Asher, 1987; Rubin, Bukowski, & Parker, 1998). 그러나 유사한 발달단계의 비슷한 욕구를 가진 또래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게 되며, 그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래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래에게 거부당하는 경우, 유아는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자신과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개념을 형성하게 되거나, 사회적 불안감, 절망감 등 여러 가지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기도 한다(Asher & Rose, 1997; Faust, Baum, & Forehand, 1985). 이러한 또래거부와 관련된 요인 중 하나로써 유아의 공격성을 들 수 있다(Coie & Dodge, 1998). 공격성, 즉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의도적으로 해를 가하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황희숙 외, 2008)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며, 이후의 사회적 적응에도 잠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Crick & Grotpeter, 1995; Mitchell, Julie, & Eric, 2001; Parker & Asher, 1987).

또래관계와 관련하여 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관심은 많은 연구들로 이어져 왔으며,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유아의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과 같은 외현적 공격성이 주로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의 경향은 남아의 공격성에만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한계가 지적된 바 있다(Crick, 1996; Crick, Ostrov, & Werner, 2006). 이와 관련지어 Crick(1996, 1997)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여아도 남아만큼 공격적이지만 단지 그 표현양식이 다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아에게서 볼 수 있는 독특한 공격성 유형을 제안하였다. Crick과 Grotpeter(1995)는 이를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이라고 명명하면서 "집단에서 배척 또는 소외시키기, 우정 철회하기, 험담 퍼트리기 등을 통해 또래관계를 손상시키거나 이를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공격성은 표현양식의 측면에서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Crick & Grotpeter, 1995), 목적의 측면에서는 공격행동을 통해 어떤 목적을 성취하려는 수단적 성격을 가진 주도적 공격성(proactive regression)과 위협이나 도발을 느끼게 한 대상에 대한 일종의 분노, 반응 및 방어적 성격을 가진 반응적 공격성(reactive regression)으로 분류된다(Dodge & Coie, 1987). 최근에는 이 두 측면을 통합하여 공격성을 4가지 하위유형 즉, 주도적-외현적 공격성, 반응적-외현적 공격성, 주도적-관계적 공격성, 반응적-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여 이해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박민정, 2002; 한영경, 2008; Hart, Nelson, Robinson, Olsen, & McNeilly-Choque, 2000; Ostrov & Crick, 2007).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또래관계에 해를 입히는 공격 형태를, 그리고 반응적-관계적 공격성은 또래의 도발에 대한 보복 방식으로 사용되는 관계적 공격성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집단따돌림이나 또래괴롭힘과의 관련성(박민정,

2002; 심희옥, 2007; 이경희, 1998; 이정희, 2002; 최현화, 2000; 한영경, 2008) 측면에서 관계적 공격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이 초·중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관계적 공격성을 탐구하려는 시도는 최근 발표된 소수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사보고를 통해 유아기 신체적 및 관계적 공격성에 성차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언어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신유림(2008)의 연구와 문화기술지 접근을 통해 자유선택활동시간 동안 만 3세 유아들의 또래 간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적 배척 현상을 분석한 강인설과 정계숙(2008)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초·중등학생 보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관계적 공격성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유아들의 언어 사용의 한계와 관계적 공격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등의 발달적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 3세 이상의 유아들에게도 관계적 공격성이 존재하며 이것이 또래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연구결과들(Crick, Casas, & Ku, 1999; Crick, Casas, & Mosher, 1997; Nelson, Robinson, & Hart, 2005; Ostrov, Crick, & Stauffacher, 2006; Stauffacher & DeHart, 2005)과 함께, 관계적 공격성이 이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안정적이며(심희옥, 2007; 이은주, 2001; Crick, 1996; Crick, Ostrov, Burr, Crystal, Elizabeth, & Ralston, 2006), 또래 거부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Crick et al., 2006)는 보고는 유아기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가 된다.

그리고 관계적 공격성은 또래 간 상호작용에서 은밀히 나타나는 것이므로, 흔히 사용하는 교사 및 부모 보고식의 방법을 통해서는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친 연구자의 참여관찰 위주의 문화기술지 접근(ethnography)을 통해 유아들의 또래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관계적 공격현상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유아교육기관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Crick et al., 2006; Ostrov, 200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기 또래관계의 중요성과 공격성의 발달적 영향, 그리고 공격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 동향과 관계적 공격성이 유아기부터 나타난다는 주장을 재고해 볼 때, 또래관계를 경험하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유아들의 관계적 공격현상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은 유아기의 관계적 공격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을 목적에 따라 범주화 한 주도적-관계적 공격성과 반응적-관계적 공격성의 차원에서, 유아들의 상호작용 맥락에서 어떠한 관계적 공격전략을 사용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산새반'[1]의 만 4세 유아들의 상호작용을 참여관찰하고 담임교사와 심층 면담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산새반 유아들의 또래 상호작용 맥락에 나타난 주도적-관계적 공격전략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산새반 유아들의 또래 상호작용 맥락에 나타난 반응적-관계적 공격전략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에 소재한 사립유치원인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치원과 학급명, 유아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임을 밝혀둔다.

하늘유치원(총 6개 학급)의 산새반 유아들(남아 11명, 여아 12명)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산새반 유아들은 유치원에 인접한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상류층 이상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가정환경 배경을 갖고 있다. 산새반의 총 유아 수는 23명으로, 남아 11명, 여아 12명이 재원하고 있다. 산새반 남아들에게는 블록놀이가, 여아들에게는 그림그리기와 소꿉놀이가 자주 관찰되며, 여아들 중 아랑이와 민지, 주리가 놀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새반의 담임인 김교사는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초임교사로서 밝고 명랑한 태도로 유아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하였으며,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화장실 사용 방법 등 생활지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빈번하게 나누었다. 산새반 유아들의 성 및 월령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자료수집에 앞서 산새반 유아들에 대한 예비관찰 6회와 2회의 교사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

<표 1> 산새반의 유아들 현황(2009. 5월 기준)

| 성별 | 이름 | 월령 | 성별 | 이름 | 월령 |
|---|---|---|---|---|---|
| 남아 | 박준오 | 53개월 | 여아 | 이은지 | 53개월 |
| | 정재성 | 55개월 | | 정민지 | 54개월 |
| | 소이준 | 57개월 | | 조경아 | 55개월 |
| | 김민수 | 59개월 | | 이아랑 | 57개월 |
| | 김준호 | 61개월 | | 한주리 | 61개월 |
| | 박기준 | 54개월 | | 백새미 | 63개월 |
| | 김재민 | 56개월 | | 최가영 | 53개월 |
| | 현진호 | 58개월 | | 정아름 | 56개월 |
| | 박혁호 | 58개월 | | 김희은 | 58개월 |
| | 최석준 | 59개월 | | 조성희 | 60개월 |
| | 홍우찬 | 59개월 | | 최연미 | 61개월 |
| | | | | 박미소 | 63개월 |

후 산새반의 교육활동 시간 중 3시간씩(오전 9시~12시), 총 30회 동안의 참여관찰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2009. 5. 11-2009. 7. 22). 교사 면담은 관찰이 끝난 후에도 메일과 전화통화를 통해 연구가 끝날 때까지 지속되었다. 연구자는 산새반 유아들과 라포를 형성한 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녹음, 사진 촬영, 비디오 촬영, 현장약기를 실시하였다. 관찰내용은 가능한 당일에 모두 전사하였으며, 전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노트와 반성일지를 작성하여 다음 관찰에 반영하였다.

## 2.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관찰 장면을 전사하면서 일차적인 해석을 함께 작성하였다. 또한 관련 사진 자료를 첨부하거나 유아들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사례에 대한 연구자의 관점이 흐려지거나 과거 유사한 사례와 혼동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전사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Miles와 Huberman(1984)이 제시한 질적 자료 분석을 위한 세 가지 활동, 즉 자료의 감소, 자료의 배열, 결론도출을 참고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Lincoln과 Guba(1985)가 개발한 질적 연구의 신뢰성 준거를 참고하였다(김영천, 1997, 재인용). 첫째,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참여관찰과 면담에서 얻은 자료 외에도 산새반의 주간교육계획안과 가정통신문, 하늘유치원 행사안내문 등을 수집하여 해석에 참고하였다. 둘째, 전문가 및 동료 연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관점과 연구자의 해석에 대한 조언을 구함으로써 연구의 신뢰도를 높였다. 셋째, 연구대상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담임교사에게 해석이 적절한지 지속적으로 검토를 받았다.

# Ⅲ 연구결과

## 1. 산새반 유아들의 주도적-관계적 공격전략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서 또래를 놀이과정이나 친구집단에서 소외시키거나, 나쁜 소문을 퍼트리는 등과 같이 또래관계에 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한다(Ostrov & Crick, 2007). 산새반 유아들은 또래 간 상호작용에서 싫어하는 유아를 거부하는 행위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을 주전략으로 하여 관계적 공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래로부터 거부되는 경험은 이후 학교나 사회생활의 적응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Parker & Asher, 1987). 산새반에서는 신체적, 언어적으로 공격적인 행위가 잦은 민수와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자주 발견되는 경아와 은지가 또래들에게 거부당하는 유아로 관찰되었고, 거부의 행위는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민수에 대해서는 대꾸하지 않거나 놀이규칙을 이유로 들어서 또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찍음으로써 거부하는 전략이 나타난데 비해, 경아와 은지에 대해서는 대꾸하지 않는 행동과 함께 놀이역할을 제한하는 전략이 관찰되었다. 먼저, 공격적인 유아와 위축되어 있는 유아에 대한 거부 전략을 사례와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싫은 유아에 대한 거부

(1) 공격적인 유아에 대한 거부

① 대꾸하지 않기

공격적인 민수를 거부하는 전략으로 나타난 '대꾸하지 않기'는 배척의 대상이 되는 유아의 말에 의도적으로 답하지 않는 것으로, 이러한 전략은 민수의 공격적인 행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민수를 배척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피소드 1>**

(민수가 그림 퍼즐을 맞추고 있고 은지가 민수 옆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을 구경하고 있다. 민수의 맞은편에서는 미소가 모노미노 블록을 가지고 놀이하고 있다. 민수는 은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은지에게 다른 것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퍼즐을 정리해 조작영역에 가져다 둔다. 민수가 조작영역에서 구슬 꿰기 교구를 들고 오는 사이 은지는 장의자 쪽으로 걸어간다)

민수 : (구슬 꿰기 교구를 가지고 자리에 앉으며 은지에게) 야, 우리 이거 하자.

아이들 : ……

민수 : (자리에 앉아서 구슬을 꿰며) 은지야, 이거 같이 하자.

은지 : (민수가 부르는 소리에 뒤돌아서 민수 곁으로 갔다가 다시 장의자 쪽으로 돌아간다)

민수 : (실에 구슬을 꿰며) 은지야, 이거 같이 하자고!

은지 : (민수 옆으로 다가갔다가 맞은편에 앉아 있는 미소 옆으로 가서 앉는다)

아름 : 뭐? 기준이?

민수 : (약간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아름이에게) 은지하고 같이 놀자고!

은지 : (미소 옆에 앉아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민수를 바라보다가 다시 미소가 하는 활동을 바라본다)

미소 : (은지에게) 우리 꽃 만들자.

은지 : 그래. (2009. 6. 30. 관찰사례)

<에피소드 1>에서는 또래들의 놀이모습을 구경하던 은지가 민수의 놀이 제안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미소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임으로써 민수에 대하여 거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대꾸하지 않기' 전략은 김용태와 박한샘(1997)의 연구에서 보고된 청소년기에 흔히 사용되는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다' 와 같이 친구를 따돌리는 방법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놀이규칙을 설정하여 배척하기

'놀이규칙을 설정하여 배척하기' 전략은 함께

놀고 싶지 않은 유아를 거부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놀이규칙을 설정하여 배척하는 것으로, 이는 규칙 설정이 비교적 자유로운 역할놀이의 상황에서 주로 관찰되었다.

**<에피소드 2>**

(다른 곳에서 놀던 아랑, 준오, 새미가 '뱀놀이'를 하기위해 도서영역으로 달려가 앉는다)
준오 : (두 손을 모아 머리 위로 올리며 잡아먹을 듯이) 독뱀이다! 크악~
아랑 : 뱀이다~히히 (피아노 아래로 숨는다)
민수 : (역할영역에 있다가 도서영역으로 뛰어간다)
아랑 : (민수를 올려다보며) 여긴 뱀만 들어올 수 있는데!
민수 : (도서영역 입구에 서서 아랑이를 쳐다본다)
아이들 : 뱀이다~!
민수 : (아이들을 쳐다보다가 역할영역으로 돌아간다)
아랑 : (조형영역 쪽을 쳐다보며) 주리 왜 안 오지? (조형영역에 있는 주리를 보며) 주리야~ 뱀놀이 안 해?
주리 : (대답 없이 조형영역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아랑 : (조형영역으로 달려간다)
(2009. 6. 2. 관찰사례)

<에피소드 2>에서 아랑이는 '뱀이 아니면 도서영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규칙을 즉흥적으로 설정해 민수의 놀이참여 자체를 거부하였다. 그와 동시에 조형영역에 있는 주리에게는 원하면 언제든지 놀이에 참여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즉, 대상에 따라 상반된 반응을 보인 아랑이의 행동을 통해 싫어하는 아이인 민수의 배척을 정당화하기 위해 놀이규칙을 임의로 만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③ 부정적 이미지로 낙인찍기

산새반에서는 민수를 거부하기 위해 '부정적 이미지로 낙인찍기' 전략이 사용되었다. 유아들의 사회적 힘에 관한 박성주(2001)의 연구는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기에 볼 수 있는 '집단 따돌림'이 유아기에는 '집단 거부'라는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개별 혹은 소수의 상호작용 상황에서는 민수에 대해 수동적인 형태로 대응하는데 비해, 집단으로 모여 있을 때에는 민수를 부정적 이미지로 몰아가며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에피소드 3>**

새노래 수업이 끝나고 난 뒤 교사가 자리를 정리하고 있다. 민수가 자신의 이마를 손으로 짚더니 "선생님 나 열나요"라고 말한다. 교사가 민수에게로 다가가 이마를 손으로 짚어보고는 다시 자리로 돌아간다. 민수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희은이가 "열나는 거 없다!"라고 말하자, 민수가 "뜨겁거든!"이라고 외친다.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던 아름이가 "거짓말 치지 마라"라고 말하자, 몇몇 아이들이 "그래"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랑은 놀면 안 돼"라고 말한다. 민수는 교사를 쳐다보고는 입을 다문다. (2009. 6. 30. 관찰사례)

<에피소드 3>에서 민수가 교사에게 열이 나는 것 같다고 말하자 아이들은 민수를 '거짓말쟁이'로 낙인찍는다. 아이들은 민수의 이미지를 '거짓말 하는 아이'로 단정 지어, 실제 발열 여부와는 상관없이 '거짓말하는 아이가 한 말이므로 열이 나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반응하였다. 이렇듯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거짓말쟁이'로 낙인찍는 행위는 대상아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집단에게 심어주므로 집단적 험담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낙인찍기는 대부분 여아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산새반에서 그 대상은 민수로 고착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계적 공격 전략은 3~5명의 유아들의 놀이상황에서 특정 유아를 배척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편이며, 교사의 주도 하에 모든 유아가 함께 활동을 해야 하는 집단활동 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부정적 이미지로 낙인찍기

전략'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의 유아들이 특정 유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2) 위축된 유아에 대한 거부

① 역할 제안하기

위축된 유아는 전형적으로 이상하고 미숙한 행동들을 많이 보이는 사회적으로 서투른 유아로(Shaffer, 2002), 외로움과 낮은 자존감, 우울, 내면화 장애를 경험할 위험이 있다(Hymel, Bowker, & Woody, 1993). 산새반에서는 경아와 은지가 위축된 유아로서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역할 제한하기' 전략이 사용되었다. 유아들은 놀이상황에서 수동적 역할만을 부여하고, 실제 언어적 교류는 하지 않는 식으로 놀이에서 소외시키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에피소드 4>**

(민지, 아랑, 재성이가 역할영역에서 놀이하고 있다. 주리와 경아가 역할영역으로 다가가 테이블에 앉는다)
민지 : (주리를 보고) 야, 너 누구야?
주리 : 나? 언니역.
민지 : 언니?
주리 : 큰언니.
재성 : 아저씨!
민지 : (큰소리로 놀랐다는 듯이 재성이를 보며) 아저씨~?
아이들 : 하하하하
주리 : (민지를 쳐다보며) 야! 얘 아빠는? 야, 그럼 내가 될 거다.
경아 : (민지를 쳐다본다)
민지 : (경아를 보고) 그럼…너는…그럼 너는 학교에 가야지! (경아의 손을 잡고 도서영역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놔두고 혼자서 역할영역으로 되돌아간다)
경아 : (민지를 바라보다가 도서영역에 앉는다)
아랑 : (주리에게) 야, 그럼 큰언니는 있잖아!
아랑, 민지, 주리, 재성이는 역할영역에 둘러앉아 모형을 꺼내며 역할놀이를 하고, 경아는 도서영역에서 책을 꺼내 읽는다.
(2009. 5. 26. 관찰사례)

<에피소드 4>에서 보면, 민지는 경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경아의 역할을 '학생'으로 결정하고, 학교에 가야한다는 역할의 행동까지 강요함으로써 '학교'로 명명된 도서영역으로 경아를 분리시키고 있다. 경아가 민지에게 역할을 부여받기는 했지만 이러한 역할놀이의 상황에서는 실제 역할을 하고 놀이에 참여한 것이라고는 해석될 수 없다.

② 대꾸하지 않기

산새반에서 사용된 '대꾸하지 않기' 전략은 함께 놀고 싶지 않은 유아를 놀이에서 소외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자주 나타났는데, 이러한 전략은 공격적인 유아뿐만 아니라 위축된 유아를 거부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에피소드 5>**

(아랑이와 새미가 블록으로 성을 만든다. 블록으로 네모나게 벽을 쌓아 올리고 그 위에 깃발모양의 블록을 꽂는다. 은지가 아랑이와 새미 옆으로 다가가 앉아서 구경한다)
새미 : 마술의 세계 서프라이즈.
아랑 : 마술의 세계 서프라이즈.
아이들 : (귀신소리처럼)에~~~ (한 톤 높게) 에~~~
은지 : (아이들 옆에 앉으며) 그게 왜 이래?
아이들 : 이히히히. <중략>
은지 : 내는 어떻게 할까? 내, 이제 안할까?
아랑 : (새미에게) 아~여기 신기한 거 또 있다! 신기한 거!
새미 : (아랑이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다가 다시 블록을 쌓는다.)
은지 : (꽃모양이 그려진 블록을 손으로 가리키며) 여, 신기한 꽃이 있네?
아랑 : (새미에게) 야, 여기에 필요하잖아. 다 됐어. (2009. 7. 21. 관찰사례)

<에피소드 5>에서 아랑이와 새미는 '신기한 것만 들어가는 성'을 만들면서 은지의 놀이개입 질문('그게 왜이래?', '내는 어떻게 하까? 내 이제 안할까?')에 대꾸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산새반 유아들에게서 '대꾸하지 않기'를 통해 함께 놀고 싶지 않은 또래를 거부하기 위해 배척하거나 소외시키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는데, 이는 외부자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은밀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놀이에 끼워주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먹다짐 하는 것은 유아들이 자신의 머리로 생각한 것들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없어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놀이에 끼워주지 않는 것은 머릿속으로 이미 '나는 저 아이가 못생겨서 같이 놀기 싫어'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
> (2009. 7. 1. 김교사 면담)

연구자와 김교사 간의 비형식적인 면담에서 김교사는 '싫은 유아에 대한 거부'를 목적으로 놀이에 끼워주지 않는 것을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김교사가 이러한 배척과 소외와 관련된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스스로가 유아들의 관계적 공격행위를 발견하는 경우보다 유아들이 교사에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알게 되는 경우가 더욱 많았다. 이는 은밀히 발생하는 관계적 공격성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며, 또 한편으로는 유치원 내에서 교사가 교육 이 외에도 해야 할 업무가 너무나 많은 교육현실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2) 사회적 힘의 과시

자신의 사회적 힘을 부각시키거나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공격 대상이 되는 유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비하시키는 '사회적 힘의 과시' 전략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는 상호작용의 맥락에 따라 '비웃기'와 '대꾸하지 않기' 등의 행위로 나타났다. 유아들은 유치원 교실에서 사회적 힘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른 유아의 실수, 단점 등을 큰 소리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상대를 낮추는 행동(Hatch, 1987)을 한다. 상대를 낮추는 행동 중 '비웃기'는 친구가 만든 것이나 하는 행동에 대해 면박을 주고 업신여기는 행동(김진영, 1998)으로, 이는 상대에게 열등감과 당혹감을 제공하며 계속적인 비웃기 행동은 대상유아가 놀이에서 자발적으로 물러나도록 만들었다.

**<에피소드 6>**

(준호가 조작영역에 있는 동물판과 작은 동물모형이 가득 든 상자를 들고 테이블에 앉는다. 민지와 아랑이가 조작영역으로 다가가 테이블에 둘러앉아 함께 놀이한다. 아랑이가 곰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민지와 준호가 곰을 찾기 시작한다)

준호 : (팬더 모형을 집어 들고) 야아~여기 있네, 곰.

민지 : (준호가 들었던 팬더 모형을 들고) 우와~ 팬더다~

준호 : 팬더는 좋아 하면은 된다.

민지 : 야, 이거 곰 아니다. 팬더다. (웃으며) 그런데 김준호 이거~ 곰이라고 했다!

아랑 : 곰, 곰도 되고 팬더도 되거든.

민지 : 어… 그거는 맞지만…(잠시 생각하더니 아름이에게) 팬더 조금 귀엽지!

준호 : (동물모형을 들고 판에 올린다)

민지 : 그러는 거 아니거든~ (준호가 내려둔 모형을 상자로 집어넣는다) <중략>

(준호가 민지와 아랑이가 놀이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카펫의 자리로 가 그곳에 앉아있던 재성이와 뒹군다)

(2009. 7. 17. 관찰사례)

민지는 아랑이에게 준호가 팬더를 곰이라고 말하였다며 비웃었다. 또한 산새반의 교구 사용법('그러는 거 아니거든')을 들어 준호의 능력을 계속해서 무시하며 비웃었다. 이러한 계속되는 비웃는 행동으로 인해 준호는 스스로 놀이에서 물러나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놀이를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2. 산새반 유아들의 반응적-관계적 공격전략

유아들은 또래 간 상호작용에서 좌절, 분노, 불쾌감 등을 느끼게 만드는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써 관계적 공격성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반응적-관계적 공격성으로 정의된다(박민정, 2002; Ostrov & Crick, 2007). Crick과 Grotpeter(1995)는 유아들이 또래에게 해를 입히고자 할 때, 동성의 또래집단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목적을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공격성을 행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산새반에서도 반응적-관계적 공격성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났는데, 여아들의 경우 정서 및 관계성과 관련된 상황에서, 남아들의 경우 도구성과 관련된 상황에서 관계적 공격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 1) 정서 및 관계 훼손에 대한 보복

먼저, 여아들은 또래가 놀이집단에서 이탈하거나 놀이자체를 거부할 때, 또는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서, 또래관계를 교묘히 조작하여 대상유아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 관찰되었다. 반응적-관계적 공격성의 대상이 되는 유아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었으며, 주로 '책임 지우기', '놀이집단에서 제외시키기', 또는 '관계 철회로 위협하기', '친구관계 철회하기' 전략을 사용하였다.

#### (1) 책임 지우기

<에피소드 7>은 자신의 놀이제안을 거부했던 유아가 다시 놀이에 참여하려하자 '이전에 하지 않겠다'고 했음을 이유로 들어 배척한 '책임 지우기' 전략의 사례다.

**<에피소드 7>**

(미소가 새미에게 함께 쌓기놀이 할 것을 제안하지만, 새미가 자신은 쌓기놀이를 많이 했다며 다른 곳을 가버린다. 미소는 근처에서 서성이던 준오에게 쌓기놀이를 제안한다. 준오가 수락하자 둘은 블록으로 '집'을 만든다. 연미와 은지가 다가가 앉으며 함께 블록을 쌓는다) <중략>

새미 : (아이들 옆으로 다가서서) 우리 같이 하자!

미소 : 야 너가 많이 했다고 안하겠다고 했다이가.

새미 : 야아~ ~

아이들 : (새미를 바라보지 않고 블록만 쌓는다.)

새미 : (옆에 있던 연구자에게로 와서 속상하다는 듯이) 선생님, 애들이 같이 안 놀아줘요. (2009. 7. 17. 관찰사례)

미소는 '같이 놀자'며 다가온 연미와 은지는 놀이에 수용한 반면, 놀이를 거부했던 새미가 다시 놀이에 들어오려 하자 이유를 들어('야 너가 많이 했다고 안하겠다고 했다이가') 배척하였다. 이는 함께 놀이를 하고자 했던 유아를 배척한 것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유아를 배척하는 것이 아닌 좀 전의 놀이거부에 대한 보복적 행위로 해석된다.

#### (2) 놀이집단에서 제외시키기

'놀이집단에서 제외시키기' 전략으로 <에피소드 8>에서 아랑이는 자신을 불쾌하게 만든 새미의 지적('대신 해주는 건 반칙이다')에 대한 보복으로 '새 그림자 맞추기 카드놀이 집단'에서 새미를 의도적으로 제외('그럼 세 명이서 하자')시켜 버린다.

**<에피소드 8>**

(아랑이와 새미, 그리고 준오와 재성이가 '새 그림자 맞추기' 교구를 들고 조작영역 바닥에 카펫을 펼친다. 아이들이 카드를 나눠가진 뒤 아랑이가 시작카드 뒤에 새그림 카드를 내려놓는다. 재성이가 카드를 들고 머뭇거리자 아랑이가 재성이의 카드를 대신 바닥에 내려놓는다)

새미 : (아랑이에게) 대신 해주는 건 반칙이다. 반칙하면 탈락이고!

아랑 : 반칙 아니다! 이거는 괜찮다!

새미 : 대신 해주는 건 반칙이지. 규칙대로 해야

된다!
아랑 : ……그럼 새로 하자. 다 카드 줘봐.
새미 : (들고 있던 카드를 내려놓는다.)
아랑 : (바닥에 있던 카드와 새미가 내려놓은 카드를 집어 들어 자신의 카드와 합친다)… 그럼 세 명이서 하자 (들고 있던 카드 중 일부를 준오에게 건넨다.)
준오 : (카드를 받아든다.)
아랑 : (바닥에 카드 한 장을 내려놓는다.)
새미 :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랑이를 쳐다보다가 울먹이며) 선생님~ 나도 같이 하고 싶은데 이아랑이 카드 안줘요. 나도 하고 싶은데 카드 안줘요. 나만 빼놓고 셋이서 해요. (2009. 7. 1. 관찰사례)

(5) 관계 철회로 위협하기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해 또래와의 관계를 임의로 조작하여 상대를 위협하는 행위로 '관계 철회로 위협하기' 전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대부분 보복적 성격을 가지며 산새반에서 친하게 지내는 유아들 사이에서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에피소드 9>**
(아름이가 역할놀이에서 큰 언니를 하겠다고 하자 아랑이가 안된다고 말한다. 아랑이와 아름, 민지가 역할영역에 서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아름 : 언니 시켜줘!
아랑 : (고개를 가로젓는다)
아름 : (아랑이에게) 그럼, 너랑 안 해. 내가 다 …했잖아.
아랑 : 그러면…니 엄마 할래?
아름 : 니 엄마 어쨌는데.
민지 : 김희은!
아름 : 나 엄마 안 할 거다.
아랑 : 그럼 큰 엄마!
아름 : 나 엄마 자주했거든. 언.. 언니 자주 안했고. 너도 엄마 자주 안 했다이가 그러니깐 엄마 네가 해라.
아랑 : … (말없이 옆에 있는 교구를 만지작거린다.) (2009. 7. 20. 관찰사례)

역할놀이에서 아랑이와 아름이가 원하는 역할이 '큰언니'로 동일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 아름이가 관계 철회로 위협('그럼 너랑 안 해')하자, 아랑이는 한발 물러나 산새반 여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역할을 타협안('니 엄마 할래?')으로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 친구관계 철회하기

<에피소드 9>에서 결국 큰언니 역할을 획득한 아름이가 아랑이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자, 이전과 반대로 아랑이가 관계적 공격전략인 '친구관계 철회하기' 전략을 사용한 사례이다. 이는 단지 특정놀이에서 너와 놀지 않겠다는 '관계 철회로 위협하기'보다 더욱 강력한 것으로서 친구관계 자체의 철회를 의미한다.

**<에피소드 10>**
(아름이가 큰 언니 역할을 맡기로 하고 난 뒤, 아이들이 모형을 뒤척거리며 이야기를 나눈다)
아랑 : 그럼 난 19살.
아름 : 난 8살!
아랑 : 그럼 네가 나보고 언니라고 해야 한다.
아름 : 아니다!
아랑 : 맞다 언니라고 불러라!
아름 : 그럼 나 100살!
아랑 : (웃으며) 그건 할머니잖아.
아름 : (따지듯이) 내가 큰 언닌데 왜 니가 언닌데! <중략>
아름 : (큰 목소리로 아랑이에게) 민지가 어 지금…맞잖아!
민지 : 어!
아랑 : (무표정한 얼굴로)그럼, 나 니 친구 안 해.
아름 : …알겠다!
아랑 : 내가 언니.
아름 : 내가 언니라고 부를까?
아랑 : 어. (2009. 7. 20. 관찰사례)

자신이 큰 언니를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던 아름이가 아랑이의 친구관계 철회선언('니 친구 안 해') 한 마디에 즉각 고집을 꺾고('알겠다!') 아랑이를 언니로 인정한 것('내가 언니라고 부를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아들 사이에서 친구관계

의 철회는 매우 강력한 공격 수단이 되었다.

### 2) 도구성의 훼손에 대한 보복

여아들이 주로 정서 및 관계훼손과 관련된 상황에서 관계적 공격성을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남아들은 도구성의 훼손과 관련된 상황에서 '관계 철회로 위협하기'와 '책임 지우기'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관계 철회로 위협하기

산새반 남아들에게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데 대한 보복으로 대상유아를 '혼자'인 상태로 만든다며 위협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에피소드 11>은 재성이가 민수의 교구를 독점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서 민수를 관계 철회로 위협한 사례이다. 이는 주로 관계성을 가치있게 여기는 여아들 사이에서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하지만, 산새반에서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남아인 민수에게도 발견되었다.

**<에피소드 11>**

(민수가 모노미노 블록을 들고 조작영역에 앉자, 민지와 재성이가 다가가 함께 모노미노블록을 쌓는다. 모든 블록을 다 쌓고 난 뒤에 블록을 다시 소쿠리로 옮기기 위해 재성이가 블록을 한 주먹 움켜쥐자 쌓아놓은 블록이 흐트러진다. 민수가 재성이를 밀치고 모노미노 블록 판 전체를 들고 소쿠리로 쏟아 붇자, 블록 일부가 바닥으로 쏟아진다. 쏟아진 블록을 줍는 민수와, 쏟아진 블록을 소쿠리로 담으려는 민지와 재성이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다)

민수 : (블록을 정리하는 민지에게) 야아~ 계속 잡지 마라~~
민지 : 야아~ 다 말한다!
민수 : (큰 목소리로) 니, 다 말해. 지금 나 지금 놀고 있는데.
재성 : (민수에게) 너 혼자서 놀면. 그러면 친구들 짜증내면 같이 놀겠냐~! (블록을 집어 든다)
민수 : 야아~ 가져가지 마라~
재성 :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니, 혼자서 해라!
민수 : (달래듯이) 야, 삐끼지 마라. 삐끼면 니, 고추 떨어지면 니 여자 된다.
재성 : (버럭 소리를 지르며) 삐끼는 거 아니거든! 아~ 진짜. (2009. 6. 10. 관찰사례)

민수는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자주 보이는데, 본 사례에서도 모노미노 블록을 혼자 독점('나 지금 놀고 있는데')하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른 채 자신의 뜻대로만 하려 하였다('계속 잡지 마라', '가져가지 마라'). 이에 재성이는 민수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며, '네가 계속 그렇게 행동한다면 이 놀이에서 너와의 관계를 철회하겠다'는 의미('니 혼자서 해라!')를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2) 책임 지우기

남아들에게서 나타나는 '책임 지우기' 전략은 <에피소드 12>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민수의 행동 이면에 숨어있는 보복성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전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에피소드 12>**

민수와 준오가 조작영역에서 모노미노 교구를 가지고 함께 활동하고 있다. 혁호가 준오의 뒤에 서서 쳐다보다가 준오 옆에 앉는다.

혁호 : 내랑 같이 하자.
민수 : 안 돼! 니는 하지마라.
혁호 : 왜에!
민수 : 너 아까 그거 했다이가. 니 그거 해라!
혁호 : 야아~~~!
민수 : (웃으며) 이거 재미없다. (준오에게 동의를 구하듯이) 맞재?
준오 : (민수와 눈이 마주치자 웃는다)
민수 : (웃으며) 이거 재미없다. 이거 재미없다 아~!
혁호 : (속상하다는 듯이) 아 왜에! 니꺼도 아니면서……야아~
민수 : 은다.[2)]

2) 경상도 사투리로 '싫어'라는 의미에 해당한다.

혁호 : (울먹이는 목소리로 선생님을 바라보며)
선생님 이거 못하게 해요.
(2009. 5. 18. 관찰사례)

교구를 점유하고 있는 민수가 놀이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혁호가 놀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민수의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존재한다. 그러나 민수는 오전에 혁호가 자동차를 선점하여 가지고 놀 때 자신에게 양보해 주지 않았던 것에 대한 보복으로써, 혁호의 놀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였다('니는 하지 마라', '너 아까 그거 했다이가'). 즉, 민수의 혁호에 대한 배척은 놀이감의 소유나 공유가 좌절될 때 나타나는 보복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 Ⅳ. 논 의

유아기에 나타나는 관계적 공격성에 초점을 두어 공격적 표현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만 4세 산새반 유아들의 또래 간 상호작용 맥락을 관찰하고 주도적, 반응적 목적에 따른 관계적 공격전략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른 몇 가지 논의점 중 산새반 유아들의 또래 상호작용 맥락에 나타난 주도적-관계적 공격전략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산새반 유아들의 또래 상호작용 맥락에 나타난 주도적-관계적 공격 현상은 대부분이 여아들에게서 관찰되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남아보다 여아들이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선행연구들(신유림, 2008; 이경희, 1998; 최현화, 2000; Crick, 1997; Crick & Grotpeter, 1995; Crick et al., 2006)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관계적 공격성이 외현적 공격성과는 달리 일정 수준 이상의 언어적, 사회적 능력의 성숙이 요구되며(Björkqvist, Lagerspetz, & Kaukiainen, 1992), 따라서 남아보다 상대적으로 언어 및 사회성 발달이 빠른 유아기 여아에게서 관계적 공격성이 더 빈번히 관찰되는 이유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겠다.

둘째, 산새반에서 나타난 주도적-관계적 공격전략 중 가장 강력한 기능을 하는 것은 '싫은 유아에 대한 거부'로서, 공격적 행위가 잦은 유아와 위축되어 있는 유아가 거부의 대상으로 고착되어 있었다. 산새반에서 나타난 거부의 대상이 고착화된 주도적-관계적 공격 현상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집단 따돌림과 유사한 형태인 집단 거부와 관련된다. 산새반에서는 거부대상의 성향에 따라 다른 전략이 나타났는데, 공격적인 유아를 거부하기 위해서 '대꾸하지 않기', '놀이규칙을 설정하여 배척하기', 그리고 '부정적 이미지로 낙인찍기' 전략을 사용하고, 위축된 유아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역할 제한하기'와 '대꾸하지 않기'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공격적인 유아를 거부하는 전략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데 비해, 위축아에 대한 거부는 놀이상황 속에서 보다 은밀하게 진행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나이든 아동에 비해 어린 아동들이 공격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사회적 위축에 대해서는 덜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한다(Coie & Pennington, 1976; 김유진, 2005, 재인용)는 보고와 관련지을 수 있어, 거부대상에 따른 전략의 차이에 관한 보다 심층적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산새반 유아들의 또래 상호작용 맥락에 나타난 반응적-관계적 공격전략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읽을 수 있었다. 산새반에서 나타난 반응적-관계적 공격 현상은 여아와 남아 모두 자신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목적이 훼손당했을 때 나타났다. 공격전략의 측면에 있어서는 여아와 남아 간에 상이한 양상을 보였는데, 여아

의 경우에는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어 '정서 및 관계 훼손'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데 비해, 남아는 놀이감의 소유나 공유가 와 관련지어 '도구성 훼손'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산새반의 여아들은 또래가 놀이집단을 이탈하거나 놀이자체를 거부할 때, 또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거나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할 때와 같이 정서 및 관계 훼손에 대한 보복적 행위로써 '책임 지우기', '놀이집단에서 제외시키기', '관계 철회로 위협하기' 그리고 '친구관계 철회하기'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계 철회로 위협하기'와 '친구관계 철회하기' 전략은 또래의 친구관계를 임의로 조작하여 상대를 위협하는 행위로, 친밀한 여아들 간에 강력한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들이 또래에게 해를 입히고자 할 때, 여아가 관계성을 훼손시키는 방법으로 공격성을 행한다고 본 선행연구(Crick, 1997; Crick & Grotpeter; 1995)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남아의 경우에 '관계 철회로 위협하기' 는 여아에 비해 자주 관찰되는 전략은 아니었으며, 놀이감 소유 및 공유 좌절에 대한 보복성을 노골적으로 또는 은밀하게 드러내는 '책임 지우기'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또래를 배척하는 특징이 관찰되었다.

한편, 산새반 유아들의 상호작용 맥락 속에서 관계적 공격의 목적에 따른 공격전략의 특징적인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주도적-관계적 공격 현상에서는 놀이규칙을 활용하거나 상대를 무시하는 전략이 주로 쓰이는데 비해, 반응적-관계적 공격현상에서는 그들의 친밀한 친구관계를 조작하는 전략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는 공격대상 유아의 특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의 대상이 되는 유아는 또래들에게 선호되지 않는 행동특성인 공격성과 위축성을 가지고 있어 이들을 놀이에서 제외시키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 그러나 반응적-관계적 공격성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유아들이 함께 놀이하는 도중에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놀이는 지속하고 싶으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관계적 공격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응적-관계적 공격성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 있으며, 갈등 상황을 통해 유아들은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은 또래괴롭힘의 초기 형태라 할 수 있으므로 초기 중재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어린 시기부터 또래들에게 거부된 아동들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고(최미경, 2000; Galen & Underwood, 1997; Olweus, 1992), 관계적 공격성의 대상유아는 내현적, 외현적 문제와 같은 심리사회적 부적응과 관련된다는 지적이 많다(Crick, 1996; Crick, Casas, & Ku, 1999; Crick, Casas, & Mosher, 1997; Crick & Nelson, 2002; Mitchell, Julie, & Eric, 2001).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유아교실에서 만성적인 피해아동이 발생하기 전에 세심한 관찰을 통해 유아들 간에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이 강조된다. 특히, 놀이 중에 발생하는 배척 및 소외현상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교사는 예방적 차원에서 유아들이 보이는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에 대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된 국내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초기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한 데에 의의가 있다. 후속적으로는 관계적 공격성의 대상이 되는 유아들의 발달적 특성과 공격에 대한 대응방식의 특징에 관해, 그리고 대응 방식이 또래수용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다 심

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강인설 · 정계숙(2008). 만 3세 유아의 놀이에 나타난 관계적 공격성 : 사회적 배척(social exclusion)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3**(4), 21-50.

김영천(1997). 학교 교육현상 탐구를 위한 질적 연구의 방법과 과정. **교육학연구, 35**(5), 135-170.

김용태 · 박한샘(1997). 청소년 친구 따돌림의 실태조사. 제 14회 특수상담사례연구 발표회 자료. 청소년대화의 광장.

김유진(2005).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대한 유아의 추론과 행동.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진영(1998). 유치원에서 또래간 사회적 힘의 형성과정.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민정(2002).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성주(2001). 푸른 유치원 만 4세 유아의 또래간 사회적 힘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유림(2008). 유아기 신체적 및 관계적 공격성 : 성차 및 언어, 사회적 능력과의 관련성. **유아교육연구, 28**(2), 95-111.

심희옥(2007). 또래 괴롭힘과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횡단 및 종단연구 :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6**(6), 1107-1118.

이경희(1998). 관계지향 공격성 및 외현화 공격성과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주(2001). 공격적 행동의 유형 및 성별에 따른 집단 괴롭힘 가해아동과 피해아동의 또래관계 비교. **아동학회지, 22**(2), 167-180.

이정희(2002). 공격성 유형과 갈등 상황 및 관계 유형이 아동의 또래 평가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옥분(2004). **발달심리학 : 전생애 인간발달**. 서울 : 학지사.

최미경(2000). 또래에 의한 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아의 경험 : 단기종단연구와 심층면담.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현화(2000). 관계지향 공격아동과 외현화 공격아동의 의도성 판단 및 반응.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영경(2008).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요인.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희숙 · 이희영 · 이경화 · 이정화 · 신경숙 · 윤경미 · 강승희 · 윤소정 · 황순영(2008). **아동발달과 교육**. 서울 : 학지사.

Asher, S. R., & Rose, A. J. (1997). Promoting children's social-emotional adjustment with peers. In P. Salovey, & D. J. Sluyter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pp.196-230). New York : Basic Books.

Björkqvist, K., Lagerspetz, K. M., & Kaukiainen. A. (1992). Do girls manipulate and boys fight? Developmental trends in regard to direct and indirect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18*, 117-127.

Coie, J. D., & Dodge, K. A. (1998).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N. Eisenberg, & W. Damo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5th Ed.) : Vol.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 779-862). Hoboken, NJ : John Wiley & Sons Inc.

Crick, N. R. (1996). The role of relational aggression, overt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2317-2327.

Crick, N. R. (1997). Engagement in gender normative versus non-normative forms of aggression : Links to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3*, 610-617.

Crick, N. R., & Nelson, D. A. (2002). Relational and physical victimization within friendships : Nobody told me there'd be friends like thes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 599-607.

Crick, N. R., Casas, J. F., & Ku, H. C. (1999). Relational and physical forms of peer victimization in pre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35*, 376-385.

Crick, N. R., Casas, J. F., & Mosher, M. (1997).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in pre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33*, 579-588.

Crick, N. R., Ostrov, J. M., & Werner, N. E. (2006). A longitudinal study of relational aggression, physical aggression, and children's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 131-142.

Crick, N. R., Ostrov, J. M., Burr, J. E., Crystal, C. S., Elizabeth, J. Y., & Ralston, P. (2006). A longitudinal study of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in pre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27*, 254-268.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Dodge, K. A., & Coie, J. D. (1987). Social-information 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146-1158.

Faust, J., Baum, C. G., & Forehand, R. (1985). An examination of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 relationships and depression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6*, 291-297.

Galen, B. R., & Underwood, M. K. (1997). A developmental investigation of social aggression amo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3*, 589-600.

Hart, C. H., Nelson, D. A., Robinson, C. C., Olsen, S. F., McNeilly-Choque, M. K., Porter, C. L., & McKee, T. R. (2000). Russian parenting styles and family processes : Linkages with subtypes of victimization and aggression. In K. A. Kerns, & J. M. Contretras. (Eds). *Family and peers : Linking two social worlds (pp.47-84).* Wesport, Praeger.

Hartup, W. W., French, D. C., Laursen, B., Jonster, M. K., & Ogawa, J. R. (1993). Conflict and frieenchip relations in middle childhood : Behavior in a closed-field situation. *Child Development, 64*, 445-454.

Hatch, J. A. (1987). Stats and social power in a kindergarten peer group.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88*, 79-82.

Hymel, S., Bowker, A., & Woody, E. (1993). Aggressive versus withdrawn unpopular children : Variations in peer and self-perceptions in multiple domains. *Child Development, 64*, 879-896.

Miles, S., & Huberman, A. (1984). *Qualitative data analysis*. Newbury Park, CA : Sage.

Mitchell J. P., Julie B., & Eric M. V. (2001).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Adolescents :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of Aggressors and Victim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30*, 479-491.

Nelson, D. A., Robivson, C. C., & Hart, C. H. (2005).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of preschool-aged children : Peer status linkages across informant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6*, 115-139.

Olweus, D. (1992). *Bullying at school-what we know and we can do*. Book manuscript.

Ostrov, J. M. (2006). Deception and subtypes of aggression during early childhood.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93*, 322-336.

Ostrov, J. M., & Crick, N. R. (2007). Forms and functions of aggression during early childhood :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School Psychology Review, 36*, 22-43.

Ostrov, J. M., Crick, N. R., & Stauffacher, K. (2006).

Relational aggression in sibling and peer relationships during early childhood.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7*, 241-253.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acceptance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Rubin, K. H., Bukowski, W., & Parker, J. G. (1998).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In W. Damon.,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619-700)*. New York : John Wiley & Sons.

Shaffer, D. R. (2002). **발달심리학**(송길연 · 장유경 · 이지연 · 정윤 · 역, 2005). 서울 : 시그마프레스.

Stauffacher, K., & DeHart, G. B. (2005). Preschoolers' relational aggression with siblings and with friend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6*, 185-206.

2010년 2월 28일 투고, 2010년 5월 6일 수정
2010년 5월 25일 채택